

# 죽음에 대한 가장 냉소적인 성찰

은희경이라는 작가를 떠올리면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냉소이다. 지나치게 차분함을 넘어서 냉소로 이어지는 건 은희경이라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고 그녀의 작품 안에서도 속속 발견되곤 한다.

《상속》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생을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낸 주인공의 죽음을 철저히 냉소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죽음의 쓸쓸함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듯하다.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사회적인 화두로 부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가족붕괴 현상이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전에는 극히 드물었던 가족간의 살인이나 범정소송 등이 종종 나타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은 일들이다. 가족간의 대화의 단절에서 출발했던 가족붕괴는 이제는 그 강도가 더해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혼율 높은 나라’ 혹은 ‘가족간의 범죄가 높은 나라’ 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삭막해져 버렸다.

《상속》에서도 따스한 가족간의 정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주인공 노인이 암에 걸린 후 그의 아들 J는 열심히 간호를 하

지만 그건 효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책임감으로 인한 것이었고, 노인의 아내 역시 그저 아내라는 자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노인의 옆에 머물기를 원했다. 물론 독립심 강한 노인의 딸 N은 정작 노인의 옆에 있기를 거부했지만 심정적으로 그에 대한 가장 큰 안타까움을 표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암수술을 하고 입을 꼭 다문 채로 죽음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아버지나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가슴 절절함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허탈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묘사가 오히려 더욱 리얼리티가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 모두의 모습이므로.

1990년대 초반부터 문단의 중심에 서있는 은희경은 그 이름을 대중에게 인식시킨 대표작 《새의 선물》에서는 따스한 시각을 가



은희경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48쪽 | 값 8,500원

호기심 많은 고고학자, 예술품 약탈자, 전문적인 보물 사냥꾼이  
중아시아의 사막지대와 중국 대륙, 알프스 산맥에서 보물을 찾아 펼치는  
숨막히는 모험과 좌절의 이야기 - 조선일보



독일 공영방송(ZDF)의 4부작 역사 다큐멘터리 <사라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을 묶은 논픽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이야기, 할리우드 영화의 소재가 될 법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 - 동아일보

볼프강 에베르트 역음 | 정초일 옮김 | 가격 15,000원 ▶ 신간

# 보물 추적자

푸른숲 | 전화 364-7871-3 팩스 364-7874 <http://www.prunsoop.co.kr>



지고 있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이 어린 조카와 이모 사이에 오가는 시선들을 따라다니며 훈훈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 은희경이라는 작가는 너무도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새의 선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 '삶은 순정 아니면 농담'이라는 짧은 한 마디에서 앞으로 은희경이 그려갈 냉소적인 세상과 삶에 대해 준비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상속》은 그녀의 냉소적인 시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냉소적인 한 인간의 죽음을 그려냈다고 말하고 싶다. 그 냉소적인 시각은 은희경만이 가진 간결하고 단단한 문체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아가 강한 아버지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 병마와도 혼자 싸우고 경제적인 힘겨움에서도 혼자 맞서 있었던 노인을 통해 그제 유독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비밀을 안고 사는 건 아닌지. 기대려 하면 다 같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건 아닌지라는 자문을 하게 했던 책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민감하고 핸드폰 기능에 대해 박식하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어느 날 문득 은희경이라는 작가가 그려낸 노인의 죽음처럼 냉소적인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누구도 오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당히 쓸쓸해지기는 할 테지만, 노인이 침묵한 채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살아오는 동안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화려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삶이 마지막 순간 아들과 딸의 시선을 통해서 재조명되었을 때 한 없이 쓸쓸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 모두의 삶이 것처럼 쓸쓸하다. 아마도 이젠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건 원죄 같은 원초적인 고독이기 때문에. **김민**

김영임 박스커뮤니케이션 기자



### 환경이야기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주는 책으로 그림이 아주 재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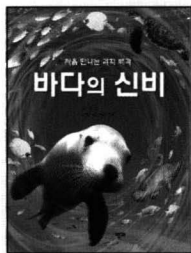
글 프랑스와 미셀 | 그림 마크 부타방 | 6,500원



### 10원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

10원처럼 작은 돈의 중요성, 효율적인 돈 관리, 은행의 역할 등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경제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어린이 경제 책.

글 미셀 르 튀크 외 | 그림 이브 칼라르누 | 6,500원



### 바다의 신비

해저 탐험, 지구 온난화 등 바다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선명한 사진과 인터넷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흥미진진한 멀티미디어 학습 백과.

글 벤 덴 | 그림 데이비드 헨콕 | 9,800원



### 우주의 신비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부터 별의 일생, 태양계, 우주 탐사선, 망원경 등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양한 자료와 생생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글 폴 도스웰 | 그림 데이비드 헨콕 외 | 9,800원



**영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20층 도서문의 전화 02)3284-0515~9 팩스 3284-0599